



허준호 “살인자 배역에 악몽까지 꿔죠”

MBC 수목극 ‘이리와 안아줘’

‘스릴러 로맨스’ 장르로 눈길

“배역 때문에 발목이 잘리는 악몽까지 꿔습니다.” MBC TV 새 수목극 ‘이리와 안아줘’에서 사이코패스 살인자 윤희재 역할을 맡은 배우 허준호(54)는 14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배역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론했다.

허준호는 “그동안 극에서 살인자 역할은 많이 해 봤지만 모두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그러나 윤희재는 살인에 대해 철저히 계획해서 치밀하게 실행하는 인물이라 배역을 맡기 전에 ‘뭉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몽은 작품의 무게감과 제가 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꾸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희재는 극 중 장기용이 맡은 채도진(윤나무)과 김경남이 연기하는 윤현무 아버지가면서 채도진 첫사랑인 한재이(김낙원)의 부모를 살해한다.

허준호는 “함께 출연하는 젊은 출연자들이 극중에서 최대로 괴롭혀서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겠다”고 웃었다. 함께 출연하는 장기용·진기주·윤종훈·김경남 등 젊은 출연자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젊은 출연자들 모두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드라마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청률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요즘은 드라마 시청률이 10%만 넘어도 잘 됐다. 하지만 저는 시청률 한 자릿수 세대는 아닙니다. 시청률 공약은 30%로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김경남, 장기용, 진기주, 윤종훈, 허준호

한편 연쇄살인마 아들이자 경찰대 출신 경위 채도진(윤나무) 역을 맡은 장기용(26)은 제작발표회에서 “로맨스와 스릴러를 빠르게 넘나드는 대본에 매료돼서 작품을 선택했다.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가 있는 경찰 역할을 내가 어떻게 연기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우 장기용은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아들이자 첫사랑을 간직한 경찰로 첫 미니시리즈 주연을 맡는다.

‘이리와 안아줘’는 희대의 사이코패스를 아버지로 둔 경찰과 톱 배우가 된 피해자의 딸이면서 서로의 첫사랑인 두 남녀가 세상의 낙인을 피해 살아가던 중 재회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감성 로맨스다.

장기용은 상대역인 진기주에 대해서는 “‘미스티’에서는 차가운 이미지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랑스럽다”며 “낙원이 역할과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진기주가 맡은 한재이(김낙원)는 윤나무의 첫사랑이자 부모가 그의 아버지 윤희재에게 살해당한 인물이다.

진기주는 “나무를 안아주는 낙원을 제가 연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나무와 낙원이 사이에 첫사랑을 넘어선 인간적인 마음이 납득돼서 재이(낙원)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용, 진기주, 허준호, 윤종훈, 김경남, 김서형, 서정연 등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최준배 PD는 “서로 피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알아주면서 인간애를 지킬 수 있는지 여러 형태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최준배 PD는 “서로 피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알아주면서 인간애를 지킬 수 있는지 여러 형태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최준배 PD는 “서로 피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알아주면서 인간애를 지킬 수 있는지 여러 형태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최준배 PD는 “서로 피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알아주면서 인간애를 지킬 수 있는지 여러 형태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최준배 PD는 “서로 피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알아주면서 인간애를 지킬 수 있는지 여러 형태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말하는 5·18 ... ‘오월, 그녀’

KBS 1TV 18일 밤 10시 방영

KBS 1TV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이날 특집 기획 ‘오월, 그녀’(사진)를 방송한다고 14일 소개했다.

이에서는 5월 항쟁에 뛰어든 여성들을 조명한다. 계엄군 총격 사이로 시민군 가두방송을 한 소녀들,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리본을 만든 여성들, 자식을 잃고 진상 규명 운동에 뛰어든 어머니들... 당시 여성들이 목격한 잔혹한 현실, 그래서 더 앞장서 행동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5·18 당시 가두방송한 차명숙 씨와 박영순 씨는 당시 방송차에 올라타 마이크를 잡고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데 나오세요. 나와서 지켜주세요”라고 외쳤다. 계엄군에 갇힌 고문을 받아 지금껏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아직도 숨어 사는 여성들을 위해 그녀들은 용기 내 다시 발언한다.

시민군 한 축이 된 여성들도 있다. 5월 27일 새벽 도청을 빠져나와 살아남은 김순이 씨는 자신을 살려주고 떠난 시민군에게 늘 빛진 마음을 갖고 시민군을 위해 발하고, 조



의금 받고, 검은 리본을 만들고, 고인들을 염했다.

이밖에 열일곱살 아들을 잃은 김길자 씨 등 수많은 여성의 생생한 증언을 제작진이 카메라에 담았다.

18일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플투’ 환희 컴백 “과감한 음악적 변신”

22일 신곡 ‘뻬해’ 발표

남성듀오 플라이트더스카이의 환희(본명 황윤석·36·사진)가 오는 22일 신곡 ‘뻬해’로 컴백한다.

14일 소속사 에이치투미디어에 따르면 이 노래는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정일훈이 랩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환희가 솔로곡을 내기는 지난해 3월 ‘그레’를 발표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에이치투미디어는 “그동안 감성적인 목소리를 들려준 환희가 이번 싱글에서 과감한 음악적 변신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플라이트더스카이는 1999년 데뷔해 ‘씨오브러브’, ‘미싱 유’, ‘남자답게’ 등의 히트곡을 내며 감성 발라드 듀오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부터 솔로 활동에 전념한 두 멤버는 2014년 정규 9집을 발표하며 재결합했



다. 지난해 미니앨범을 내고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두 사람은 팀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민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헬수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슈퍼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0 우리가 만난 기적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2018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다큐 공감 (재)	00 1대 100(재)	20 가재! 낭만 고향 (재)	55 닥터 365
2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0 해외특선다큐 55 프리파라 3	00 뉴스브리핑
3	05 생로병사의 비밀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뽀뽀뽀 모아야 놀자 55 하라랜드 2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지역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시크릿 마더 (재)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랑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슈퍼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검법남녀	00 기쁨진 멜로
11	20 KBS 뉴스라인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하룻밤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스승의날 기획 독립영화관 (뽀뽀걸즈)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상담상담 동물원 프렌즈	15:15 파프리카	19:50 극한직업 스페셜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차차 기행 - 2부 원년, 소수민족과 차)	09:40 정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영채 푸짐, 파리고주 정장복음)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소수민족 음식 기행 2부 원년장터음식)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우영채 푸짐, 파리고주 정장복음)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단팥이라 좋아 2부 섬마을 견우와 처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강가의 집인자, 웰스메기)	16:00 냉정하고 나라, 코코롱	21:50 EBS 다큐프라임 (뽀 2부 뽀, 아주 오래된 질문들)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13:00 대구 오늘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2:45 우리만 이리가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강가의 집인자, 웰스메기)	16:30 방귀대장 뽀뽀(재)	23:55 뽀치미
07:45 출동! 슈퍼워즈2	13:40 뽀치미(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4:45 지식채널e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4:50 한국영화특선 (라디오스타)
08:30 허준성이 과학소(재)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7:30 마사와 곰	
08:45 방귀대장 뽀뽀		17:45 띠띠뽀 띠띠뽀	
09:00 몬카트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1~4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5일(음 4월 1일 丁未)	
子	36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어렵다. 48년생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유용하리라. 60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72년생 중박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2, 13	午	42년생 마음 자체가 득실을 좌우한다. 54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을 야기한다. 66년생 취하면 입자가 될 것이다. 78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옳다. 90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 대어를 낚게 해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15
丑	37년생 내적인 실속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49년생 쾌재를 부르는 날이다. 61년생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73년생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85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9, 86	未	43년생 미련을 둘 필요 없다. 55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67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79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안게 된다. 91년생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9, 01
寅	38년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옳다. 50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62년생 계획된 바를 진행하기 썩 좋은 날이다. 74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관측은 결과가 보인다. 86년생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5, 66	申	44년생 승세를 발휘한다면 크게 호평을 받을 수 있다. 56년생 중박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68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80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92년생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4
卯	39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51년생 김윤이 들어오고 있다. 63년생 소홀히 해 왔던 점이 없는 지 살펴 볼 일이다. 75년생 생각지 못한 패악 보이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낫다. 87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0, 09	酉	45년생 엉겁결에 터보에서 역올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57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69년생 희망적이다. 81년생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93년생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후련하겠다. 행운의 숫자 : 10, 49
辰	40년생 분위기 파악을 잘 하라. 52년생 변수가 나타나서 예상 밖의 판도를 구성할 수도 있다. 64년생 마음을 빼앗긴다면 빠져 오기 힘들다. 76년생 의외의 방해자가 보이므로 대비해야겠다. 88년생 어중간하다면 아예 하지 않음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30, 98	戌	34년생 믿음이 간다면 바로 선택해도 무방하다. 46년생 습관이란 위험의 자매이다. 58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70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안정 국면으로 재편되리라. 82년생 시류에 편승하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54, 75
巳	41년생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53년생 보보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가의 선택이 용이하다. 77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89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행운의 숫자 : 14, 32	亥	35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 말에 따르면도 하자. 47년생 하루 종일 매달리더라도 결심은 미미하다. 59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바가 무너질 수 있다. 71년생 굳이 경계할 이유까지 없다. 83년생 취약점 보이거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0,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